

지역 매 아리

부안군애향운동본부

경제보복 규탄대회 전개

부안군애향운동본부(본부장 장용석) 회원 100여명은 18일 부안터미널 사거리 등에서 일본 경제보복 규탄대회 거리행진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 8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규탄대회는 ‘(일본 제품) 사지 않습니다.’, ‘(일본 여행) 가지 않습니다.’, ‘경제보복 아베정권 NO!’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인구늘리기 동참 및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도 함께 이뤄졌다.

장용석 부안군애향운동본부 본부장은 “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애향운동본부가 앞장서 캠페인을 벌여 나감으로써 나라의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벗어나고자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인구늘리기,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으로 꾸준히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군민의장' 수상자 선정

고창군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제35회 고창군 군민의장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군민의장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장 김영돈, 산업군로장 오룡열, 애향장 김광중, 공익장 이윤갑씨가 각 부문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장의 김영돈씨는 고창출신 불화장(佛華堂)으로 예술의전당 사계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불교미술의 예술성을 인정받아 스리랑카 상카대학 불교철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는 등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과 전통미술 부문 대상 수상에 고창 문화예술인의 위상을 높였다.

산업군로장 오룡열씨는 고창에서 자란 농산물을 활용해 포기김치, 맛김치, 깍두기를 생산해 전통발효식품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켰다. 또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무, 배추 등을 구매해 가공하면서 생산자의 판로를 책임져 농가소득 향상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애향장 김광중씨는 재경고창군민회 13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고창인문지'와 같은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통해 군민화합에 앞장섰다. 애향행사단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고창농산물 대신 팔아주기 및 홍보활동을 통해 고창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애향정신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익장 이윤갑씨는 1989년 제33대 고창군수로 부임해 30여년간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위민 봉사 행정에 애썼다. 특히 군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이번 공익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창=김영식기자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정읍사랑상품권 5천원·1만원·5만원권 발행... 12월까지 가맹점 집중 모집

정읍시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장기와 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지역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자본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소득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시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구조를 만들고자 마련한 대안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은 5천원권과 1만원권, 5만원권 등 3종으로 총 50억 원의 규모로 발행되며 권면 금액의 6%를 상시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올 11월 지류 발행을 목표로 2020년에는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할 계획

이며 모두 정읍지역 내에서만 유통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정읍사랑상품권'에 참여할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대상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도·소매업, 숙박업 등 정읍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소다.

단,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준)대규모 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주소가 정읍시 외로 되어있는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은 가맹점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지역경제과(☎063-539-580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9년 12월까지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으로 정하고 가맹점 모집원이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해 접수한다.

유진섭 시장은 "상품권이 발행되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는 물론 상품권으로 생산과 유통, 소비가 지역에서 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다 같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는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지난 6월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1월부터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보건소,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성료

정읍시 보건소가 정읍시립오양병원과 함께 18일 연지 아트홀에서 제12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치매 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와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도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정했다.

행사는 '치매, 안심하세요! 함께 극복해요!'라는 주제로 △식전 축하 공연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 위해 헌신한 유공자 표창 수여 △다 함께 치매 극복 퍼포먼스 △치매 예방교육과 공연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해 정읍시의회의장, 시의원, 치매 관련 기관 직원과 치매 환자의 가족,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극복을 위해 주민

공동대를 만드는 것에 공감하는 등 지역 내 치매 예방대책을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정읍시 치매추진환자 수는 3,453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2.19%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평균 10.18%를 넘는 수치다.

시 관계자는 "치매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이다"며 "앞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무성서원 가치 제대로 알려겠습니다”

정읍시, 무성서원 알림이 배우 백송이 홍보대사로 위촉

정읍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7일 영화와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백송이를 무성서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성서원 홍보대사를 위촉해 무성서원 알리기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읍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백송이는 중국사범대학을 졸업한 수재로 중국 유학 시절 유언히 모델과 배우로 데뷔해 베이징 국제영화제 인기상과 중국 항주영화제 광명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떨쳤다.

최근에는 정읍시에서 제작 지원한 SBS 드라마 '녹두꽃'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정읍시에 남다른 관심을 가

지고 시를 알리는데 힘써왔다.

중국어는 물론 일본어와 영어에 능숙한 백송이는 국내외를 넘나들며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백송이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 유학길에 오르기까지 정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읍의 풍상한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매력을 전파할 것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촉식에서 백송이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성서원뿐만이 아닌 정읍시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리는 건인 차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무성서원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며 “무성서원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힐링의 추억을 남기고, 무성



서원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그대로 널리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무성서원을 국내외에 다양하게 알리고자 서을 광화문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0월 11일에는 '무성서원'을 범도민적 축제 분위기 속에서 기념하고 축하하는 기념식이 무성서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한 과수원에서 유기상 군수와 공무원들이 쓰고려 앉아 배 줍기에 한창이다.

‘낙과줍고, 벼 일으켜 세우고’

고창군, 태풍 피해농가 일손돕기 울력

“힘 내십시오”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겨내실 겁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한 과수원. 갓 들어온 신규 공무원부터 장년이 몇 년 남지 않은 나이 지긋한 과장들까지 쓰고려 앉아 배 줍기에 한창이었다. 허리하반 퍼지 못하고, 단 밤새에 낀 모기떼와 싸움 하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일동이를 가득가득 채웠다.

농장주는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것들은 배즙으로 가공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일손이 없어 염두를 못했었다”며 “군청 직원들이 도와준 덕분에 수월해졌다”고 고마워했다.

마을에선 쓰러진 벼를 일으켜 묶는 작업이 진행됐다. 무더위를 견디고 탐스러운 알곡으로 가득 찼던 벼들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농부는 “작일이 커운 벼를 한순간에 잃고 내니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허탈할 뿐이다”며 한탄했다. 군청 직

원들은 묵묵히 대어섯 포기의 벼를 일으켜 세우고, 한 다발씩 묶으며 농민의 마음을 위로했다.

군청 직원들은 “피해규모가 너무 커 마음이 아프다”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산속히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청 전체 직원들이 지난 17일 태풍 피해 현장에 투입돼 농민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피해복구를 도왔다. 이번 태풍은 역대 5번째 규모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컸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이번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벼 도복 140ha를 비롯해 과수원과 40농가 52ha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24시간 비상 체제 돌입

고창군, 가축 방역 상황실 설치

고창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것과 관련해 24시간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고창군은 18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17일 경기도 파주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가축 방역 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예찰과 방역을 진행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포 소독약품들을 배부하는 등 농가 소득에 철저를 기하고, 농장임구를 통제해 축사

내·외부 소독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울타리를 튼튼하게 보강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해 관내 양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고창군 축산과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방백신과 치료약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발생 시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군민들께서는 방역활동에 협조해 주시고 발생국 여행자제 및 해외여행 시 불법축산물 반입을 하지 않는 등 발생방지를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4호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호 | 375ml 2ea/13%

부안강산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94-9960
www.gangsanwine.com